



아버지께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현재입니다.



오는 8월 21일,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6년이 됩니다. 이번 6주기를 앞두고故 이용마 기자의 아들에게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부탁드립니다.

올곧은 기자이자 열정적인 조합원, 현재와 경제의 자랑스러운 아버지故 이용마를 올해 더 깊은 간절함으로 추모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떠난 뒤 매년 더 새롭게 알게 됩니다.

편지 전문을 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경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1년 반 뒤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였습니다.

문재인 이후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벽에 돌연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이는 무마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되고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평생 바라고, 싸워오셨던 언론의 변화였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정치권이 언론사에 끼치던 영향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계가 어느정도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헌신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실이 이어지고 이어져 앞으로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도, 그 위기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언론이, 민주주의가 굳세다는 증거로 이어질 바랍니다.

언론이 균형잡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진실을 밝히고,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공영방송 및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오신 노력들이 지금의 언론계를 받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투쟁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故 이용마 기자 6주기 추모 행사
(8.11~8.21)



■ 추모 사진전 & 추모 영상 상영
(상암MBC 1층 로비)

■ 추모 현수막 게시
(전국 각 지부)

'방송3법' 개정

38년 만에 언론 독립 첫걸음을 내딛는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군사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수단이었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1987년 11월 28일 '방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명문화된 규정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전리품 삼아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오랜 악습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국회가 지난 8월 5일, 이러한 악습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탄압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언론장악의 망상에 빠져 '아무 말'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이번 '방송3법' 개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최초의 제도적 전환점이자, '진짜 언론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낙하산 사장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는 야만적 탄압도, 이제 다시는 이 땅의 공영방송 역사에 발붙일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영방송은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제대로 비판했던 MBC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파괴와 장악 시도, 헌법 파괴자·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단전·단수 폭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MBC의 성취는, 정권의 공영방송 말살 시도와 겁박에 맞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조합원들, 그리고 이를 믿고 지지해준 민주 시민이 함께 일군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 오랜 투쟁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故 이용마 조합원을 다시 떠올립니다. '공정방송사수' 170일 파업으로 부당 해고되었지만, 암 투병 중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그가 생전에

남긴 외침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습니다. 진실 보도와 권력 감시, 사회적 약자 배려가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라고 믿었던故 이용마 조합원의 6주기(8월 21일)를 앞두고, 방송3법 개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습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부역자', '언론장악 수괴' 이진숙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불법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역시 시급합니다. 더하여, 조합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성을 지켜내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MBC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방송3법' 처리 이후 즉각 방송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진짜 언론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조합의 실천과 행동은 더욱 치열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방송3법' 개정 촉구 MBC본부 주요일지

2023~2024년	윤석열, '방송3법' 2차례 거부권 행사
2025년 4. 4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5. 9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2025 시민문화제
5.14~ 6. 2	'이제는 언론개혁' 거리 피케팅 (전국 MBC지부)
6.10	국회 과방위, '방송3법' 소위 및 전체회의 취소
6.19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공약 충실히 이행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6.23~	<방송3법 개정 촉구> 국회 앞 현수막 시위 돌입
6.30~	언론노조, <방송3법 개정 촉구> 108배 돌입
7. 1	전성관 본부장, <방송3법 개정 촉구> 108배
7. 2	'방송3법'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7. 7	'방송3법'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8. 4	방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시작
8. 5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방문진법 상정
8월	임시국회 중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전망



전국 강타한 극한호우... 조합원 취재기

<마른 손은 젖은 땅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혜현 취재기자 (24사번) / 대전

“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건넌 가장 어리석은 인사였다. 벼짚 하나라도 건져보겠다며 허리까지 차오른 물길을 헤치는 주민을 향해 습관처럼 그 말을 꺼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너무도 멀끔했다. 보송보송한 손에 마른 옷을 걸친 기자가, 그들의 고통에 얼마나 무심했던가.

비가 쏟아지던 새벽, 급히 당진으로 향했다. 현장에 다다랐을 무렵, 끝없이 이어진 물길을 보고 ‘당진에 강이 이렇게 많았나’ 싶던 순간, 물 위로 소들이 머리를 빼꼼 드러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분 단위로 밀려든 제보영상을 보고도 미처 알 수 없던 ‘재난’이, 눈앞에서야 비로소 느껴졌다.

대피소 공기는 무거웠다. 어린아이 홀로 텐트 사이를 맴돌았다. 카메라를 본 이재민들은 문을 잠그거나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면죄부라도 쥔 듯 돌아다니는 나는 그저 뒤늦게 도착해, 앞서가버린 재난의 속도를 따라가려 애쓸 뿐이었다. 차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공포, 순식간에 집이 잠긴 충격.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안녕하지 않았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더듬을 수 있었다. 이튿날에는 농가를 찾았다. 전날 들을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 현장은 또 달랐다. 농민은 8년 전 수해로 가족을 잃고, 이번엔 애써 일군 재산을 눈앞에서 놓쳤다. 썩어가는 수박 밭은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 그대로였다. 양계장에는 초복을 앞두고 죽은 닭 4천 마리가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눈을 질끈 감고 싶었지만, 사체를 뜯는 눈으로 치워낸 농민의 침묵을 마주하고자 눈을 더 크게 떴다.

마른 손으로 남긴 이 기록이, 젖은 삶을 딛고 설 마른 땅이 되기를 바란다.



<산사태가 휩쓸고 남은 것은>

이선영 취재기자 (22사번) / 경남

올해 장마는 유난히 가물었다. 뜨거운 햇볕만 내리쬘자 이번 여름은 비가 없나보다 싶었다. 착각이었다. 7월 초 폭우가 쏟아졌다. 반가운 단비가 아닌 100년 만의 폭우였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일주일 간 있었던 산청·하동 지역에 또다시 일주일가량 머물게 됐다. 마을 전체가 토사에 쓸려간 곳도 있었고 아기돼지 삼형제 막내돼지가 지은 것처럼 튼튼해보이는 벽돌집도 토사와 거대한 돌덩이에 종잇장처럼 무너졌다. 도로는 곳곳이 부서져 돌아가기 일쑤였고 경찰 순찰차가 토사에 묻히고 소방대원들이 길을 잃어 우리에게 길을 물어왔다. 말로만 듣던 산사태가 이렇게 무서운 재해라는 것을,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주말 근무와 새벽 3시에 출근하고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스케줄보다 더 힘든 건 유족 인터뷰였다. 이미 2명의 가족과 이웃을 잃고 사라진 형수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온 유족은 담담히 상황을 설명해주셨지만 뒤돌아선 그의 어깨는 흐느끼고 있었다. 실종자가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된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찬 유족들의 울음소리에 현장 취재를 온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때마다 언론의 역할을 되새기며 간신히 스스로를 붙잡았다.

극한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했다. 산사태 다음날 레포트를 즐기는 사람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 내 집이 아닌데도 250km를 달려 도와주러 온 사람들. 여러 삶의 모습들을 생생히 전하고 기록하며 시청자들과 후대에 배울 점과 반성해야 할 점을 찾도록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닌가 싶다.



극한호우가 끝나자 폭염이 들이닥친 가평 산사태 현장. 나는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반년 차 영상기자인 나에겐 현장을 생생히 전해야 한다는 열정이 앞섰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동행한 오디오맨이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리포트는 큐시트 앞 순서였다. 방송까지 시간이 촉박했고, 통신마저 불안정했다. 길은 막혀 있었고, 몸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문득 나는 열정이 아니라 일정에 쫓겨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취재할 때 불구덩이에 날아드는 불나방 같이 된다고 느끼는데, 이번이 딱 그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디오맨은 더 무리하면 온열질환에 걸릴 듯 위험해 보였다.

<최고의 안전장치는 동료의 관심>

변준언 영상취재기자 (24사번) / 서울

올라오지 말고 민가에서 기다리라 했다. 나와 동기 취재기자는 계속 올라가 스탠드업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번엔 동기가 나를 걱정했다.

“너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괜찮아?”

ENG를 잡은 손은 덜덜 떨리고, 뷰파인더 속 영상도 달달 흔들렸다.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내 한계를 실감했다.

잠시 뒤, 체력을 회복한 오디오맨이 물병을 들고 올라왔다. 물을 마시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쓰는 8월 3일. 전국에 또 극한호우가 예보됐다. 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늘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비슷한 현장에 다시 가게 된다면 일정도, 열정도 아닌 나와 동료의 안전을 가장 신경쓰겠다고 다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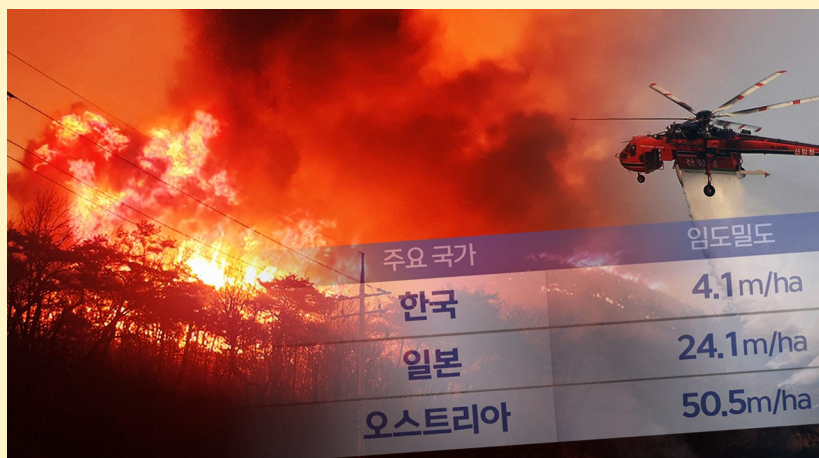
2025년 2분기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프로그램

좋은 보도상

서울

재난 부르는 '임도' 논란 연속보도

차현진, 김민욱 조합원



수상소감

지난 봄 경상권에 일어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산림청은 예년처럼 임도 부족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주장했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같은 정부기관인 국립공원공단도 최근 "임도가 오히려 재난을 키운다"며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산림청은 입장을 선화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 자리에서 산림청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 뿐 아니라, 기사를 본 동료 조합원들이 높이 평가해준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연속보도

이혜현, 김광연, 김성국, 박선진 조합원
최기웅, 황인석, 김준영, 김 훈

수상소감

고 김용균 씨가 혼자 일하다 숨진 일터에서 6년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 근무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가 난 설비에는 방호장치도 없었습니다. 고 김충현 씨는 바로 옆에 있는 비상 정지 장치조차 누르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지만 법이 모든 걸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김충현 씨 외에도 6년여 동안 숨진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는 1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 뒷맛이 씁쓸합니다.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프로그램상

서울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4>

김지우, 장하린, 김익환 조합원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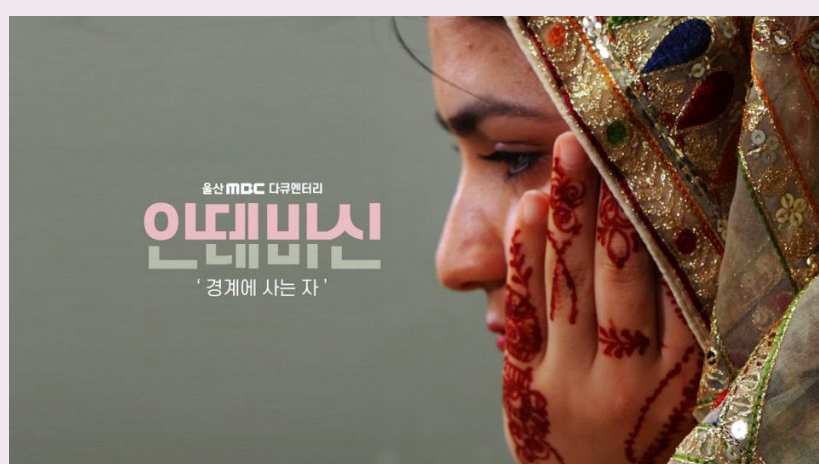
먼저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교양, 예능,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민실위에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계일주4>를 통해 저희는 히말라야 근처 차마고도 지역을 탐험하며 현지의 문화와 전통을 한국에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낯선 곳, 쉽게 갈 수 없는 곳에서 펼쳐진 4형제의 모험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안테바신>

김보은 조합원



수상소감

2022년 3월, 울산에 29가구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정착했습니다. 이들과 지역 사회와의 공존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특별기여자라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정착 3년차를 맞은 지금, 이들 공동체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정착 과정을 기록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테바신>의 주인공 조호라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1호 대학생인 여학생인데요. 이슬람이자 여성인 조호라가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난민 2세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는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도 취업이 쉽지 않으니 조호라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1년 동안 그 과정을 팔로우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었는데, 이 다큐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 지상중계

지난 7월 16일, 올해 두 번째 노사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을 통해 나아지는 삶-조합원 권익 증진’이 목표인
16기 집행부는 MBC 구성원들이 더욱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안을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법인 콘도 제휴 확대

제안 배경

조합원들이 이용 가능한
회사 제휴 콘도의 양과 질 증대

| 조합 “성수기 때마다 법인 콘도 예약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좀 더 많은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콘도 개수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또 4인 가족 이상, 부모님 동반 여행도 많은데 30~40평대 이상 넓은 객실도 선택 가능했으면 합니다.”

| 회사 “성수기 높은 경쟁률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 인정합니다. 콘도 회원권 구입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계휴양소처럼 개별 제휴를 맺는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해외출장 시간외실비 현실화

제안 배경

업무 출장은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출장 일수를 적게 잡기 때문에
간주 시간외실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해도 합당한 보상이 없음

| 조합 “매년 해외출장 건수와 인원,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장 시 평일에만 ‘간주’ 시간외실비가 일괄 4만원 책정될 뿐, 주말은 새벽부터 밤까지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해도 시간외실비를 전혀 받을 수 없어 매우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 회사 “예전과 달리 최근 매우 힘든 출장이 많아진 것 알고 있고 조합 의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악용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올해 시간외협약 체결 시에 보완책을 함께 논의합시다.”

건강검진비 단가 인상

제안 배경

직원 복지 향상 및
건강 관련 리스크 조기 발견·관리

| 조합 “건강검진 지원 비용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남자 35만원, 여자 44만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기본 검진비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추가 비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SBS와 KBS는 우리보다 지원 비용이 10만 원 정도 높고, 일정 연령 이상 되면 100만 원 상당의 정밀 검진 비용을 회사가 추가 지원 합니다.”

| 회사 “건강검진 대상에 가족 1인을 추가하면서 5억 원 넘는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안은 개별 논의하기보다 향후 자원 관련해 논의할 자리가 있을 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은 5년 단위 사회문화체험이 직원들에게 좋은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젊은 직원들과 오랜 기간 헌신한 선배들을 위해 ‘3년차/30년차 사회문화체험’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노사협에서 제안했습니다.

조합은 “직원들의 실질 급여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PS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 250억 원 이상’에서 ‘15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이익 배분율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직원들의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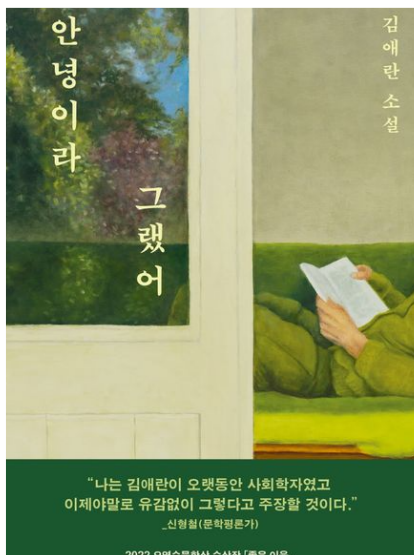
중동, 동남아를 거쳐 체코 프라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K-TOWN’ 사업의 실체, 회사의 리스크 부담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측은 “사회문화체험 신설보다는 기존 연차축진제부터 충실히 시행하자”, “250억 원 이상 영업 이익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논의는 가능하다”, “K-TOWN 사업은 계약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나 추후 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추천도서

<안녕이라 그랬어> 김애란 작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더위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안녕하신가요? 유난히 재난이 많았던 올여름, 재난 취재 현장을 비롯해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신 조합원 여러분께 존경을 보냅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이라 걱정은 되지만 이번에도 감히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애란 작가님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이 문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대화가 더 마음을 흔드는 문장이라 생각되지만 그건 읽을 분들을 위해 여기선 아끼겠습니다^^ 이 소설을 해설한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친김에 말하자면 작가란 온갖 사실들의 오지를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진실의 땅에 작은 깃발 하나를 꽂는 직업이기도 하다”(p.297-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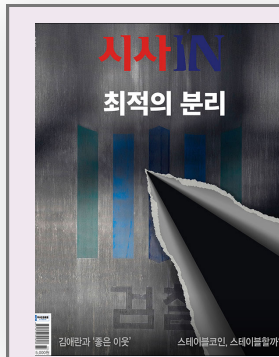
이 ‘작가’라는 주어의 자리를 저희 모든 직군의 조합원분들 이름으로 채워도 저는 잘 어울리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 거짓으로 가득한 향량한 오지에서 묵묵히 진실의 자리를 넓혀 가는 MBC 본부 조합원분들은 그래서 멋지십니다.

소설이란 장르의 매력은 그 상상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회와 독자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답이 아닌!) 던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도 조합원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상상력을 모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故 이용마 선배님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외치셨던 말과 글의 날갯짓이 조금씩 큰바람이 되어 방송3법 개정이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조합은 선배님의 바람이 완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전성관
제16대 본부장



P.S.

이번엔 특별히 <시사인> 933호를 함께 끼워드립니다. 김애란 작가 인터뷰가 실렸는데 도움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일상의 자잘한 눈치’라고 읽었습니다.

일상에서 각 개인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이번 소설을 통해 김애란 작가는 어쩌면 비루하기까지 한 우리 속내를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선뜻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기 주저하는 모습 말입니다). 문득문득 자동반사적으로 스치는 주변(이웃)과의 비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시선에 맞춰 본인의 행동거지를 다잡는 일상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읽는 맛이 쏠쏠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들어서요. 그런데 알갭게도 남의 욕망은 탐욕같고 내 것만 욕구처럼 느껴집니다. 기본욕구, 생존 욕구할 때 그런 작은 것으로요. 그런데 그곳에 생존이란 말을 붙여도 될까, 그런 건 좀 염치없지 않나 자책하다가도,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두에게 몇몇한 선이란 과연 어디까지일까 반문합니다”(p.141)



2025 MBC 어린이캠프 쇼! 어린이 캠프중심

조합원 자녀들을 위해 7월28일~30일까지 진행된
아주 특별한 방학 이벤트, MBC 어린이캠프!!
올해는 <쇼! 캠프-어린이 캠프중심> 으로
더욱 유쾌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